

#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2:11-20

## 【인도자를 위한 예화】

참을성 없는 어떤 여성이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통과 함께 출산이 시작되었고, 여성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소리를 지르다가 남편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배가 이렇게 아픈 건 당신 때문이야. 나쁜 인간!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어? 아이고, 나 죽네!” 남편은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애는 낳아야지.” 그렇게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얼른 와서 우리 아기 좀 봐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를 보게 해 줘서 고마워. 당신이 고생하고 낳았으니 아기 이름은 당신이 지어요.” 아내는 아기를 한참 바라보더니 아이의 이름을 ‘부를 초’(招), ‘아우 제’(弟)로 짓자고 했습니다. ‘초제’란 동생을 간절히 보고 싶을 때 붙이는 중국식 이름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크지만, 그 후에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필요한 일임에도 해야 할 엄두가 나지 않거나 다수가 무관심한 일에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경험할 뿌듯함과 기쁨을 생각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람을 주저하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장래의 소망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현실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나중에 얻을 기쁨을 생각하며 일을 진행한 적이 있나요?

## 【본문 읽기】 느헤미야 2:11-20절을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11절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사흘을 머물렀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긴 여정에 피곤할 만도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 사흘만 휴식한 후 곧바로 예루살렘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포로 귀환자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선한 일을 완성하는 52일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셨다는 확실한 증거는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부어 주신 뜻에 따라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대적들을 따돌렸고, 때로는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백성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로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무리의 방해를 뚫고 느헤미야와 백성의 건축을 형통하게 이끄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확히 분별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 곧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수했습니다.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I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17절)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이 더는 수치 당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라본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는 두 단어는 ‘어려움’과 ‘수모’입니다(17절). ‘어려움’이란 ‘곤경’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운 처지’를 뜻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성이 파괴되고 대적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계속 고통 당하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포로 귀환 공동체의 현실을 보여 줍니다. 당시 1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성은 재건했지만, 성벽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포로 귀환 백성의 삶을 녹록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자들의 고통을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고통과 동일시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 됨을 통해 앞으로 시작될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에 귀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 그들이 당할 '수모'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악행을 범하는 이방인과의 교류로 인해 나타날 영적 타락과 피폐함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의 어려움과 수모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이에 그는 바사(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리는 먼 거리를 달려와 예루살렘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적용과 나눔 I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사건과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무너진 영역을 볼 때 성도로서 내가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당한 곤경과 안타까운 처지를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자신의 어려움과 수모로 끌어안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앞장섰고,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끝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의 여러 사건과 재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인류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인종 차별, 사생아와 미혼모, 낙태와 빈곤 문제 등은 모두 인류의 죄에 따른 결과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할 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죄와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신앙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이 그 성으로 대피해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야 합니다. 황폐함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위기를 끌어안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 무너진 이 땅은 조금씩 회복될 것입니다.

## 관찰과 묵상 II

**느헤미야가 포로지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자 대적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19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느헤미야와 포로 귀환자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반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대적 중 하나인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마찬가지로 한 지역을 통치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근동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녔다는 사실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더불어 유다 총독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처럼 산발랏과 도비야 외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같은 막강한 대적이 더해지면서 성벽 재건을 추진해야 하는 느헤미야와 포로 귀환자들은 더 큰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 개축이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19절의 '업신여기고 비웃다'는 대적들의 반응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비웃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말을 더듬다, 조롱하다'라는 뜻입니다. 타인의 목소리를 흉내 내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상대를 모욕하는 행동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땅히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할 대상을 경시하고 모욕하는 부당한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로, '비웃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를 지닌 동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 등의 대적이 성벽 재건 계획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선한 역사를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대적하는지를 강조합니다.

## 적용과 나눔 II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대적의 방해 받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대적을 향해 담대하게 반박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형통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 이미 아닥사스다왕의 재가를 받은 상태이기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의 질문에 느헤미야의 대답은 마치 동문서답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그는 대적자들의 조롱과 협박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할 때 수많은 사탄의 공작과 방해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눈앞에 닥친 시험과 연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악한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꾀계를 대적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